순창군, 올 아동·청소년 예산 98억원 투입

11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급식·간식비 2500원으로 인상…청소년 문화체험장도 마련

순창군은 올해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6억4000여만원이 증가한 98억원을 편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2월부터 관내 11개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등·하원 여부를 보호자가 알림서비스로 받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이들 급식 및 간식비도 정부 기준 1일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됐다. 올해부터 도비로 1인당 600원을 추가 편성해 1일 총 2500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친환경 쌀값도 올해 1인당 월 4000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군은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방안으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련관 옆 공터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한 야외 슬라이더 물놀이장을 일품공원 일원에 2주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학업 외 다양한 재능 발휘를 위해 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 월 1회 이상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보이, 연극, 댄스, 음악 등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청소년들의 체험 선호도 1순위로 꼽히는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만들기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3층에 체험실을 조성한다.

군은 또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억원에 자체 예산 2억원을 추가 편성해 장난감도서관 2층에 실내놀이체험실도 설치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부터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도록 조성한 행복누리센터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밝은 마음과 건강한 신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어린이집 원아들이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다. 〈순창군 제공〉

목포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시설 사용법 홍보

소화기 등 스티커 제작·부착

목포소방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소화기·완강기·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했다고 30일 밝혔다.

목포소방서는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 소방시설 사용법 동영상 QR코드와 그림 형식으로 이해를 돕는 3종 스티커 3000매를 제작·부착하고 사용법을 집중 교육했다.

장경숙 목포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를 통해 대형 화재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율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구례군, 다문화가정 회관 건립해야"

가구수 200호로 증가…복지공간 필요성 제기

구례군의 다문화가정 가구수가 증가세에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의 다문화가정은 전체 1만3243호 중 200호로 1.5%를 차지한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78호로 39%를 차지했으며 필리핀이 35호, 중국 30호, 일본이 23호 순이었다.

또 태국과 인도네시아, 몽골 ,키르키스탄, 미국 등 총 10개국의 국민이 구례군에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출산한 자녀는 360여명으로 인구(2만6563명)의 1.4%를 차지했으며 가구별로 1.8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늘리기에 온힘을 쏟고 있는 구례군이 올해 다문화가족을 위해 잡아 놓은 예산은 4억78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00여만원이 늘어났다. 이는 가구당 239만원 꼴이다.

하지만 늘어가는 다문화가정 가구수에 비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은 작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우 구례군다문화가정 회장은 "우리군이 군 규모에 비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청소년문화회관에 함께 자리하고 있어 장소가 협소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늘어가는 다문화가정 가구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이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지역 전체 가구수 74만7681호 중 다문화가정은 1만3342호로 1.7%를 차지하며 4만6658명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 전남 인구(179만명) 중 다문화가정의 인구는 2.6%에 달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남원시 보건소가 운영하는 '비만관리교실'에서 참가자들이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스트레칭과 체지방 감소를 위한 유산소운동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보건소, '비만관리교실' 운영

100여명 대상 매주 수요일 1시간씩 진행

남원시 보건소가 비만 개선을 위해 분기별 25명씩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관리교실'을 운영한다.

비만관리교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운영된다. 첫 교실은 1월부터 3월까지 운영된다.

보건소는 분기별로 신청자를 모집해 운동 전문가를 통해 스트레칭과 체지방 감소를 위한 유산소운동,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강화운동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건소는 기초체력진단과 혈액검사, 혈압, 복부 둘레, 체성분 검사 등을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비교 측정한다.

참여자의 체중과 기초체력, 건강상의 변화를 확인해 프로그램 효율성을 높여간다.

또 한의사와 기공체조 강사, 영양사, 체육전공 신체활동전문가 등도 투입된다.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 비만침과 한약보조제, 트램폴린, 식사일기 작성에 따른 식이섭취 교육 및 일대일 상담 등의 한의학 비만교실과 체계적인 연계사업을 진행한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고 우울감 및 자존감 저하도 문제가 된다"면서 "지역주민이 건강 체중을 되찾고 생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비만관리교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의회, '인문학·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의결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 의결됐다.

정읍시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은 정읍의 역사인문활동에 힘이 실리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사업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인문활동 의욕 고취와 참여 유도를 위한 인문주간 지정 운영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읍시 인문학 동인회 회원,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도 가졌다.〈사진〉

이 의원은 조례안 의결과 관련 "조례 제정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정읍시민을 육성하고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귀농·귀촌 유도

익산시는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개선과 귀농·귀촌 유도를 위한 '2020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읍·면지역, 동지역, 주·상·공업지역 제외)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다.

시는 대상자에게 연면적 150㎡이하(부속 건축물 포함)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해주고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정읍서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열린다

대한씨름협회, 11월 개최 확정…정읍단풍미인씨름단 출전

2020 천하장사 씨름대축제가 정읍에서 열린다.

정읍시에 따르면 대한씨름협회 이사회에서 '2020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최종 개최지로 정읍시를 확정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씨름협회와 정읍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1월 중 7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는 설날·추석·단오장사 씨름대회와 함께 4대 민속씨름대회 중 하나다.

정읍시는 대한씨름협회와 씨름대축제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씨름 명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창단 5년 차를 맞은 단풍미인씨름단은 재도약을 위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뛰어난 역량의 선수들을 씨름단에 영입해 팀 전력을 보강했다.

씨름단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반드시 장사를 배출한다는 각오로 모든 선수들이 훈련에 임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정읍의 열정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전국에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앞으로도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스포츠 메카 정읍'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